

고유수용성 감각과 신체 소유감

윤 샤 론[†]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이 논문의 목적은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이 자신의 신체와 신체적 행위(physical action)에 대해 소유감(sense of ownership)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외수용기가 아닌 신체 내부의 신경조적인 내수용기에 의존하는 감각으로, 신체 부분(bodily parts)의 존재, 위치, 움직임을 아는데 있어 인식적으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고유수용성 감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일인칭성에 주목하여 슈메이커의 '오식별 오류에의 면역성 Immunity to Error through Misidentification(이하 IEM)'이 고유수용성 감각에 적용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심리철학자 마르셀이 제기하는 병리적 반증사례를 차례대로 모두 격파함으로써 두 주장을 공고히 한다. 첫째, 고유수용성 감각은 내 신체와 신체적 행위에 관한 소유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오류불가능하다. 둘째, 고유수용성 감각은 내 신체와 신체적 행위의 소유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주제어 : 지각철학, 심리철학, 고유수용성 감각, 오류에의 면역성, 소유감

[†] 교신저자: 윤샤론, 이화여대 철학과 대학원,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연구 분야: 분석철학
E-mail: kingofsharon@gmail.com

논의의 배경

우리는 눈을 감아도 내 팔다리가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사지의 움직임과 같은 신체적 행위(physical action)가 내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 '내 것임(mineness)'이라는 감각 혹은 느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즉 우리는 외적으로 지각하거나 관찰하지 않더라도, 내 신체 부분(bodily parts)과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소유감(sense of ownership)'¹⁾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 내 신체와 내 행위에 대해서 소유감을 가질 수 있다.

우선 고유수용성 감각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외수용기(exteroceptor)가 아닌 신체 내부의(somatic) 신경조직인 내수용기(interoceptor)에 의존한다. 우리의 오감은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외수용기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반면 고유수용성감각은 우리 내부의 근육, 관절, 힘줄에서 발생하는 감각으로, '6번째 감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대략적인 위치, 자세나 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고유수용성 감각²⁾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학문의 영역에 따라 정의내리는 방식이 사뭇 다르다. 가령 뇌과학, 신경과학, 인지과학의 영역에서는 신체 내부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완전히 전인지적인(sub-personal), 무의식적인 기능으로 다룬다. 반면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종종 고유수용성 감각 작용을 의식(consciousness)의 한 형태로 다룬다.³⁾ 가령 오쇼네시는 그의 저서 *Consciousness and the World*에서 고유수용성 감각에 의해 자각하고(aware) 있다는 것은 내 신체와 물리적 움직임에 대해 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며,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한 신체 상(body image)는 인식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한다.⁴⁾

또한 김슨과 같은 생태심리학자와 그와 궤를 같이하는 심리학자들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한다. (Gibson, 1986) 김슨은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정보를 수동적으로 받

- 1) 통상 'ownership'은 소유권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번역을 지양하고 'sense of ownership'을 소유감이라고 칭한다. 내 신체와 행위에 대해서 가지는 ownership은 사회적 권리의 개념이라기보다, 일종의 '내 것임'이라는 느낌 혹은 감각에 가깝기 때문이다. 내 신체에 대한 "내 것임"의 느낌은 보통 '소유감sense of ownership'이라고 칭하고, 내 행위에 대한 '내 것임'의 느낌은 '행위자성에 대한 감각sense of agency'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번역어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 2) 고유수용성 감각, 'proprioception'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proprio'는 'proprius'에서 온 것으로, 'one's own' 혹은 'belonging to oneself'를 의미한다. 지각(perception)에도 사용되는 'ception'은 'capere'에서 온 것으로, 'to take' 혹은 'to seize'를 의미한다. 즉 고유수용성감각의 어원 분석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고 할당된 지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용어는 뉴턴과 그 역할에 대한 저술로 신경생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생리학자 Charles Scott Sherrington에 의해 20세기에 소개되었다.
- 3) Gallagher, Shaun (2003). "Bodily Self-Awareness and Object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Vol. 7: p. 53.
- 4) O'Shaughnessy, Brian (2003). *The Consciousness and th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Chapter IV (pp.626-628).

아들인다고보다, 경험 주체가 직접적으로 지각하고 그들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적인(active) 과정으로 설명한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신체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유수용성 감각을 시각 및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여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감각 시스템으로 본다. 즉 깊은 역시 우리의 신체의 자세나 움직임을 알려주는 고유수용성 감각은 자신에 대한 비시각적(non-visual)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한다.⁵⁾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를 주장하는 학자들 역시 지각 경험에서 신체와 세계가 맺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지각이 단지 내부의 정신적 과정이거나 심적 표상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배격하며, 대신 지각은 기술적 활동(skillful activity)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Noë, 2006) 지각하는 것이 일종의 신체적 기술(bodily skills)을 요한다는 인식틀/framework 하에서도 고유수용성 감각은 자기-자각(self-awareness)에 필수적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유수용성 감각은 자신의 신체와 신체적 행위에 대해서 인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고유수용성 감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일인칭성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외부 자극을 통한 지각이 아니라 내적인 방법으로, 즉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해 얻은 내 사지가 내 것이라는 일종의 소유감은 나에게만 할당되어 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얻은 내가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한다는 소유감은 행위주체에게만 할당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방식은 신체적 행동에 관한 한 중심적이며 실제로 신체적 행동 현상에 필수적이다. 신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려면 신체적 의지가 영향을 미치는 사지의 존재와 위치에 대한 고유수용성 감각이 있어야 한다. (O'Shaughnessy, 2003)

그렇다면 우리는 내 심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내성(introspection)을 통해 얻은 지식에 관하여 나는 오류불가능하다는("오류에 면역성"⁶⁾을 가진다) 주장처럼 (Shoemaker, 1968), 내부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해 우리의 신체와 신체적 행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식 역시 오류불가능하지 않을까? 고유수용적 자각(proprioceptive awareness)이 비-지각적(non-perceptual), 비-관찰적(non-observational) 자기자각(self-awareness)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고유수용성 감각은 오류불가능성(오류에 면역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에반스, 카삼, 갤러거, 피콕 등의 철학자들이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한 자기-자각은 오류불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Evans, 1982; Cassam, 1995; Gallagher, 2005; Peacocke, 2003), 마르셀은 무정부적 손(Anarchic Hands)이라는 병리학적인 행위 사례를 가져와 이를 반증하고자 한다. (Marcel, 2003) 이 글의 2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선 마르셀을 반박하며 무정부적 손이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한 자기-자각은 오류불가능하다'라는 명제에 대한 반증사례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마르셀이 제시한 반증사례는 약한 반증사례로

5) Gibson, James (1986).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Psychology Press, (pp. 182-188, pp. 203-208).

6) "Immunity to Error through Misidentification(이하 IEM) relative to the first-person pronoun"

Shoemaker, Sydney. (1968). Self-reference and self-awareness. *Journal of Philosophy*, 65: 555-567.

보고, 2절의 3번째 부분에서 강한 반증사례인 고유수용성감각의 착각의(illusory) 경험인 진동-촉각(vibro-tactile) 실험을 제시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고유수용성감각의 착각 경험 사례도 무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 주장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내 신체와 신체적 행위에 관한 한 “소유감(sense of ownership)”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오류불가능하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이 없더라도, 나는 나의 신체나 행동에 대한 소유감을 가질 수 있는가? 즉 고유수용성 감각이 없더라도 신체적 자기-자각(bodily self-awareness)이 가능한가? 마르셀은 이안 워터맨 사례(Ian Waterman case)라는 또 다른 병리적 반증사례를 가져와, 고유수용성 감각은 행위의 자각(awareness of action)의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본고의 3절에서는 마르셀의 반증사례가 무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 결국 **고유수용성 감각은 내 신체와 신체적 행위의 소유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옹호하고자 한다.

고유수용성 감각의 “오류에 면역성 (IEM)”

내부로부터 얻은 “소유감(sense of ownership)”

서론에서 언급했듯, 고유수용성 감각은 타인이 접근할 수 없으며 오직 주체에게만 열려있다는 점에서 1인칭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내 심적 상태에 대해 내성적으로(introspectively) 얻은 지식에 관해서 나는 오류불가능하다는 주장처럼(Shoemaker, 1968), 우리가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해 지식을 얻는 내적인 방식 역시 오류불가능하지 않은가? 즉 내가 눈을 감고서도 내 다리가 “내 것임(mineness)”을 느낄 수 있고, 또 지금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 행위가 “내 것임”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소유감(sense of ownership)은 오류불가능하지 않은가? 이 주장에 대한 슈메이커, 에반스, 피콕, 갤러거, 카삼, 마르셀 등 학자들의 열띤 철학적 논쟁을 이 글에서 개략적으로 다루고, 마르셀을 반박함으로써 고유수용성 감각은 “오류에 면역성”(줄여서 “오류면역성”, 혹은 “IEM”이라고 부르겠다)을 가진다는 입장을 옹호하고자 한다.

우선 이 글에서 내가 오류 불가능함, 오류에 면역성으로 의역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서술할 필요가 있다. 슈메이커는 *Self-Reference and Self-Awareness*에서 “1인칭 대명사에 관한 오식별 오류에의 면역성(Immunity to error through misidentification relative to the first-person pronoun)” (이하 IEM)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IEM이라는 개념은 지각이나 그에 의한 판단에 오식별이 일어날 수 있지만, 특정 자기-귀속(self-ascriptions)은 오류 면역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슈메이커는 내 심적

7) 슈메이커는 두 가지 종류의 자기-지칭self-reference을 말한다. ‘사례-재귀적token-reflexive’ 자기-지칭과 ‘유형-재귀적type-reflexive’ 자기-지칭이 있는데 유형-재귀적 자기 지칭은 일반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를 사

상태에 대해 내가 내성으로 얻은 지식에 관해서는 내가 오류면역성, 즉 IEM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hoemaker, 1968) 에반스를 필두로 카삼, 피콕, 깰러거같은 학자들은 슈메이커의 IEM을 받아들여, 내부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해 우리의 신체적 속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식들 역시 오류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내가 만약 '내부로부터(from the inside)' 무언가를 경험한다면, 신체를 어디 점유했는지의 정확하고 상세한 위치에 대해서는 실수 할 수 있어도 내가 표상하는 신체가 누구의 것인지 틀릴 수는 없다. (Evans, 1982)

마르셀의 반증사례 : 무정부적 손 현상(Anarchic Hands)

한편 마르셀은 무정부적 손(Anarchic Hands)⁸⁾라는 병리학적 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례가 고유수용성감각이 오류불가능하다는 명제가 틀렸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무정부적 손 환자들은 그들이 소유하지 않았다고 느끼는(disowned) 행동에 대해서 고유수용성감각적으로는 자각하고 있다(proprioceptively aware). 환자들의 무정부적 행위에 대한 자각이 외부의 시지각이나 촉각적 지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정부적 손 사례는 고유수용성감각은 오류불가능하다(IEM)는 명제를 반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Marcel, 2003)

그렇다면 마르셀이 제시한 무정부적 손 사례에 의해서 고유수용성 감각은 오류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우선 무정부적 손 사례가 반증사례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오히려 이는 내가 하려는 주장에 대한 약한 비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내 주장에 대한 강한 비판인 고유수용성 감각의 착각경험(illusory experience)을 제시할 것인데, 나는 이 또한 성공적인 반증사례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무정부 손 사례에서 행위의 '이방적인 느낌(otherness)'은 있지만 주체가 행위를 소유하지 않는(owned)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정부적 행동의 사건에서, 가령 어떤 환자

용하는 자기-귀속인 반면 사례-채귀적 자기-지칭은 스스로를 특정 개인으로서 지칭하는 것으로 오류불가능하다(IEM). 가령 "나는 인간 종이다."라는 유형-채귀적 자기-지칭은 오식별misidentification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나는 여기에 있다."와 같은 사례-채귀적 자기-지칭은 언명을 만드는 사람이 언명의 주체가 됨을 직접적으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날 수 없다.

Shoemaker, Sydney. (1968). Self-reference and self-awareness. *Journal of Philosophy*, 65: 555-567.

8) 무정부적 손이라는 병리적 현상은 의도 없는 행위action without intention이다. (Della Sala et al., 1994) 무정부적 손 현상을 보여주는 환자들은 기저피질의 퇴행cortico-basal degeneration과 함께 운동보조영역 supplementary motor area에 손상이 있다. 이 환자들은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unintended, 복잡하며 잘 시행된well-executed, 그리고 목표-지향적인goal-directed 행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Della Sala의 관찰한 무정부적 손 환자 중 어떤 사례를 들자면, 환자는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에서 타인의 접시에 있는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집어들어서 본인이 먹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

Della Sala, S. (1994), 'The anarchic hand: a fronto-mesial sign', in F. Boller and J. Grafam (eds.), *Handbook of Neuropsychology*, ix. Amsterdam: Elsevier, North-Holland.

가 다른 사람의 팔을 때리는 사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자는 타인의 팔을 때리는, 즉 행위를 하는 손이 타인의 손이 아닌 자기 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것은 환자가 타인의 팔을 때리는 자신의 손을 시각, 촉각으로부터 지각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일까? 그렇다기 보다는, 환자 내부의 고유수용성 감각 자체에 오류는 없었기에, 자신의 팔에 대한 소유감이 있으며 환자는 자신의 손으로 타인의 팔을 때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타인의 팔을 때린 행위가 자신의 행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는 고유수용성 감각에 의해 내 신체에 대한 참인veridical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내가 남을 때리고자 하는 의도나 지향성과 같은 심적 상태의 내용과 행위의 내용, 즉 내 팔로 남을 때렸다는 결과가 일치할 것이다. 한편 무정부적 손 사례가 특징적인 것은, 환자가 남을 때리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품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르셀도 인정하는 것처럼, 무정부적 손 사례에서는 자신의 신체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오식별은 일어나지 않지만, 내부의 의도, 노력, 의지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었기에 행동의 비소유감(disownership)을 느끼는 것이다.

피콕 역시 마르셀의 공격에서부터 에반스가 필두로 주장한 고유수용성감각의 오류면역성을 옹호하고자 한다. 피콕은 마르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누군가가 F이다, 그러나 내가 F인 바로 그 사람인가?'라고 '말이 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속성 F는 무엇인가? 무정부적 손의 주체는 누군가가 그의 손을 움직인다는 지식을 가지는가? 무정부적 손 사례의 주체가 누군가가 그의 자신의 손을 움직인다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기에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무정부적 행동은 타인인 누군가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에게도 소유되지 않기에 그 행동에는 행위자가 없다...따라서 '누군가가 F이다'라는 앞의 연언지가 거짓이며, 무정부 손은 IEM의 반례가 되지 않는다... 또한 주체는 실제로 외부감각이 아닌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해서 남의 손이 아니라 그의 손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뒤의 연언지의 질문은 부조리하다(nonsensical). 따라서 무정부적 손은 IEM의 반례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¹⁰⁾

즉 고유수용성감각과 같은 내적인 방식으로 "나는 F이다"라는 판단에 도달하였을 때, "누군가 F인데, 그것이 나인가?"라고 묻는 것은 부조리하게(nonsensical) 들린다.¹¹⁾ 가령 내가 다리를 꼬고

9) 이 논문에서 'normal'의 번역어로 칭하는 '정상적'은 규범적 의미라기보다, 통계적으로 다수를 점유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다. 가령 착시 경험과 대조되는 표준적 지각 상황, 병리적 사례의 행위자와 대조되는 통상적 지각자의 사례에서 필자는 '정상적' 케이스로 칭한다.

10) Peacock, Christopher. (2003). Action: Awareness, Ownership, and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p. 109.

11) "'나'(I) (또는 "나의"(my))라는 단어의 사용에 두 가지 다른 용례가 있는데, "객체로서의 사용"(the use as object)과 "주체로서의 사용"(the use of subject)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첫

있다고 할 때, 다리를 꼬고 있는 것이 나인가? 라고 의심을 품는 것은 부조리하다.

만약 마르셀이 고유수용성 감각이 오류면역성을 가진다(IEM)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 제기한 무정부적 손 사례가 무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더 강력한 예시들로 위 명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다음 절에서는 무정부적 손 사례보다 더욱 강력한 사례를 제시하고, 한편 이 사례조차 고유수용성 감각의 IEM에 대한 반증사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명제를 더 공고히 옹호할 것이다.

더 강력한 사례 : 착각 경험(illusory experience)

고유수용성감각 자체가, 우리의 외부지각과 마찬가지로 착각경험(illusory experience)이 가능하면 고유수용성감각의 오류면역성(IEM)에 대한 공격이 가능할까? 시각의 착시경험이 충분히 가능하듯이, 고유수용성 감각 자체에도 착각이 가능하다면, 고유수용성감각은 오류불가능하다는 명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경험과학적인 사례에서, 사지의 위치에 관해 진동-촉각적 착각(vibro-tactile illusions)이 일어났다는 실험의 보고가 있다.¹²⁾ 간단히 말하자면, 주체가 실제로 자신의 사지가 위치좌표 A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육에 진동이라는 조작을 가해 주체가 자신의 사지가 위치 B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더 명료한 이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세가지의 착시(illusory) 경험과, 하나의 참인(veridical) 경험을 서술해 볼 것이다.

1) 물 속에 있는 내 다리가 휘어져 보인다.

(빛의 굴절로 인한 착시 경험이다. 외부지각은 충분히 오류가능하다. 지각경험은 오류가능하다.)

번째 사용의 예이다. "내 팔이 부러졌다," "내 키가 6인치 자랐다," "내 이마에 흑이 났다," "내 머리가 바람에 날린다." 두 번째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나는 어떠한 것을 본다," "나는 어떠한 것을 듣는다," "나는 내 팔을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나는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빨이 아프다." 이 두 가지 범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의 사례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인지(recognition)를 포함하며, 이런 경우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 가령, 사고가 나서 내가 팔에 고통을 느끼고 내 옆에 다른 사람의 부러진 팔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 반면에 내가 이빨이 아프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인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너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너라고 확신하냐?"라고 묻는 것은 부조리(nonsensical)하게 들릴 것이다."** (Wittgenstein 1958, 66-7)

Wittgenstein, Ludwig (1958). *The Blue and Brown Books*, Blackwell Oxford. (pp. 66-67).

권홍우 (2017). "오인으로 인한 오류 면역성의 교훈", 철학사상 : 129-156.

위 권홍우의 논문에서 번역을 참조함.

12) 마르셀이 소개한 진동-촉각 착각 실험에서, 팔 근육에 특정 진동을 가하면 피험자는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부 피험자는 실험에서 실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도 자발적인 움직임의 방향을 계속 엉뚱하게 경험했다. (Marcel, 2003)

ii) 멍이 든 다리가 여러 개 얽혀있는 것을 내가 거울을 통해 볼 때 내 다리가 멍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멍든 다리를 보고 내 다리가 멍든 것으로 생각한다.¹³⁾

(내부적으로 아는 고유수용성 감각이 아닌 외부지각인 시각을 통해 다른 사람의 다리를 내 다리로 착각하는 것은 시지각의 착각이다. 마찬가지로 지각경험은 오류 가능하다.)

iii) 내 특정 근육에 진동촉각(vibro-tactile) 자극이 가해져서 내 다리가 실제로 왼쪽에 있으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한다.

(고유수용성 감각이 객관적인 사지 위치에 대한 참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유수용성 감각의 착각경험이다. 객체적 자기-지칭(objective self-reference)에 관한 한 고유수용성 감각은 오류 가능하다.)

iv) iii번 사례에서 주체는 내 다리의 '내 것임'의 경험을 한다.

(진동촉각이라는 조작을 가했을 때, 주체는 객관적 다리의 위치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다리가 내 것이라는 소유감(ownership)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1인칭적, 주체적 자기-지칭(subjective self-reference)에 관해서 고유수용성 감각은 오류불가능하다.)

우리는 3번과 4번 사례에서 자기-지칭(self-reference)을 객체에 관한 것과 주체에 관한 것으로 구분해야한다. 객체적인 신체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착각이 가능하다. 우리는 3번 사례를 통해 고유수용성 감각이 사지의 위치에 대한 참인(veridical) 정보를 필수불가결하게 제공해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유수용성감각은 자명하고, 오류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것임mineness'(the sense of ownership)에 관해서는 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내 다리의 객관적인 위치좌표에 대해서는 착각 할 수도 있지만, 내 다리가 내 것이지, 남의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남의 다리를 내 것이라고 오인할 수는 없다. 깰러거 역시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체처럼(as object)' 접근한다면 오식별(misidentify)할 수 있으나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체처럼 as subject' 접근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오식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Gallagher, 2000). 이러한 설명 하에서, 깰러거는 카삼과 에반스(Cassam, 1995; Evans, 1982)에 동의하며 체내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한 자기-지칭이 오식별을 통한 오류에 면역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¹⁴⁾ 즉 고유수용적 자각(proprioceptive awareness)에 근거한

13) 비트겐슈타인이 *The Blue and Brown Books*에서 제시한 예시이다.

14) 한편 여기에서 더 나아가, 깰러거는 독특하게도, 고유수용성 감각 자체가 지각의 한 형태가 아니기에 고유수용성 감각 자체는 식별identification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카삼과 에반스, 깰러거 셋 모두 고유수용성 감각이 IEM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한편 카삼과 에반스는 고유수용성감각을 지각의

신체적 자기-귀속(bodily self-ascription)은 오류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정부적 손 사례에서도, 의도는 없었지만 그 행동을 한 손이 '내 것임'을 주체는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동착각사례에서도 객관적 위치에 대해선 오인해도 내 다리는 '내 것임'을 주체는 '자명하게'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방식이 외부 지각이 아닌 내부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명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으며, 고유수용성감각은 내 신체와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한 '소유감'(sense of ownership)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류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마르셀이 제시한 반증사례와 더 강력한 착각경험 사례에도 불구하고, 고유수용성감각은 오류면역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이 없더라도, 나는 나의 신체나 행동에 대한 소유감을 가질 수 있는가? 마르셀은 이안 워터만(줄여서 IW로 칭하겠다)이라는 또 다른 병리적 반증사례를 가져와, 고유수용성 감각은 행위의 자각(awareness of action)의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Marcel, 2003) 한편 이 글에서는 위 주장을 위해 마르셀이 제시한 IW 사례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말할 것이다. 즉 우리는 고유수용성 감각이 행위의 자각에 필요하지 않다는 적절한 경험과학적 혹은 병리학적인 사례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고유수용성감각이 '행위자성에 대한 감각(sense of agency)'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고유수용성감각과 행위의 자각

마르셀의 반증사례: 이안 워터만(Ian Waterman) 케이스

마르셀은 고유수용성 감각이 행위의 자각(awareness of action)에 있어서 필요조건이 아님을 이안 워터만(IW)의 사례로 입증하고자 한다. IW이 19세에 되던 해, 그는 식중독으로 인해 심각한 위장병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감각 신경들은 손상을 입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는 목 아래의 모든 감각을 잃게 되어서 그의 사지의 위치나 사지의 움직임에 관한 의식적 자각(conscious awareness)이 부재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고유수용성감각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각을 얻게 되지만, IW는 후천적으로 고유수용성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주의할 것은 그가 완전한 근육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수용성감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적 움직임이 불가능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야를 가릴 경우에 그는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기도 힘들어했다. 하지만 30년을 걸친 훈련 끝에 IW는 정상적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대상-지향적 행위를 비교적 탁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¹⁵⁾ 마르셀은 고유수용성감

한 형태로 보았고 겹쳐지는 이에 반대한다. 고유수용성이 지각의 한 형태나 아니냐의 문제는 논쟁적이지만 이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각의 부재로 IW는 그의 사지의 배치에 대한 자각과 그의 행동을 의식할 수 없어야 하지만, 마르셀은 그가 신체부분과 행위자성을 소유한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정확하게 그의 신체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무얼 하는지 시지각이 없다면 완벽하고 자세하게 보고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의 신체는 그의 것이고, 무언가를 행위 하고 있다는 자발적 행위에 대한 자각은 있기 때문에 마르셀은 IW의 사례가 고유수용성감각이 행위의 자각에 필요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IW 사례는 운동조절에 있어 고유수용성감각의 개인특질적인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우리는 IW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조나단 콜이라는 신경과학자는 이안 워터만 사례와 고유수용성감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훈련에 참여했는데, 조나단 콜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과 진행한 장기간의 훈련 끝에, IW는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체득했다, 즉 새로운 운동기술(motor skill)을 획득한 것이다.¹⁶⁾ IW에게 고유수용성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다시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는 보완적(compensatory) 감각에 의지하는 방식을 훈련을 진행했다. IW에게 시각적 정보는 고유수용성감각의 피드백의 부재에 대한 필수적인 대안이다. 즉 그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신체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그의 움직임에 의식적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움직임은 주변 공간, 조작할 물체 및 다른 물체를 포함한 환경과 지속적으로 시각적으로 접촉하는 것에 달려 있다. 모든 움직임은 사전에 계획되고, 힘과 방향은 직관적으로 계산되며,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그의 동작을 관찰한다.¹⁷⁾ 시각적으로 그의 스스로의 움직임의 궤도를 추적하며 시각적 피드백에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 그는 피부에서 느껴지는 온도와 압력 같은 촉각적 감각(cutaneous sensor)을 더 민감하게 발전시켜, 그의 움직임의 분절된 동작의 단서로 활용한다. 따라서 일반 사람보다 IW가 이러한 보완적 감각에 더 증강된 의식(heightened awareness)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시각적으로 내 다리를 보지 않아도 내 다리가 있다고 느낀다. 따라서 나는 내 다리가 있다고 '봐서' 다리가 내 것임(ownership)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가 있다는 일종의 현상적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IW도 끊임없이 신체적 움직임을 시행할 때, 그것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의도(심적상태)와 신체 움직임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일종의 그만의 심적 지도(mental map)을 설계하고, 그가 어떤 움직임을 시행할 때마다, 움직임에 대한 어떤 느낌과 심적

15) McNiell, David. (2009), IW- "the man who lost his body", Handbook of Phenomenology and Cognitive Sciences.

16) Cole, Jonathan. (1995), *Pride and a daily marathon*. MIT Press.

17) IW는 특정 제스처를 거울을 보면서 시행하고, 그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Blind Chair(이 의자는 목 아래에 검은 천이 씌워져 있어 목 아래를 볼 수 없음)에 앉아 거울을 보면서 수행했던 동작을 반복 시행한다. Jonathan Cole의 위 책 참조.

표상이 도출되었는지 언어적으로 보고(verbal report) 하는 훈련을 시행했다.

IW의 사례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

결국 IW가 눈을 감고서도, 그가 팔을 들었다고 보고할 수 있는 이유는 30년간의 훈련을 통해 그는 그의 의도(intention)와 그의 신체 움직임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이 방식이 통상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 행위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유수용성감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우리는 사지의 위치와 신체적 기술(bodily skills)을 비-지각적으로, 비-관찰적으로 알고 있고 의도를 가짐과 동시에 운동조절이 가능하다. 아무리 IW가 시지각, 촉각, 압력 등 보완적 감각들의 피드백을 통해 의도와 행위를 연결하는 식의 수많은 훈련을 통해 (시각적 관찰이 없더라도) 내가 팔을 들었다는 행위자성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팔을 들었다고 보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가 고유수용성감각 뿐 만 아니라 보완적 감각들이 없었더라면 행위자성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IW에게 보완적 감각들조차 부재했더라면 그는 19세에 고유수용성감각을 잃음과 동시에 그의 신체, 행위에 대한 소유감을 잃었을 것이며 훈련을 통해서도 되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해보자. 만일 IW이 맹인이며, 청각이나 온도나 압력 같은 촉각 등의 외부지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유수용성감각을 잃었다면 IW이 한 방식대로 그의 의도와 움직임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며, 사실상 신체와 행위에 관해 소유감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 반면 맹인, 청인, 촉각적 감각 등등 지각적 능력이 없는 이가, 고유수용성감각은 가지고 있더라면 그의 신체나 행위에 대한 소유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시지각 정보 없이도 그의 행위를 언어적으로 보고할 수 있었던 IW의 능력은 감각과 운동 경로(sensory and motor pathway) 간의 재구성(reorganization)을 할 수 있는 신경망의 가소성(plasticity)를 증명해준다.¹⁸⁾ 하지만 이 사례 그 자체로 고유수용성감각이 신체와 운동의 소유감에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마르셀이 반증사례로 든 IW 케이스가 적합하지 않다는 더욱 강력한 반박으로는 다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IW는 선천적으로 고유수용성감각이 부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19세에 특정 사고로 인해 고유수용성 감각을 잃게 된 것이다. 갤러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안 워터만은 "그의 신체를 잃어버린 사람(the man who lost his body)"으로, 그는 19세에 그의 "신체 도식(schema)"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¹⁹⁾ 선천적으로 고유수용성감각이 없는지, 후천적으로 감각을 잃었는지가 왜 중요한가? 이 이유를 알바 노에가 제시한 '경험적 맹시(experiential blind)'을 소개하며 설명

18) McNiell, David. (2009), IW- "the man who lost his body", Handbook of Phenomenology and Cognitive Sciences.

19) 1998년 BBC HORIZON에서 방영한 이안 워터만의 다큐멘터리에서, 손 갤러거는 이안 워터만이 "신체 (혹은 신체 도식)를 잃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하고자 한다.

노에는 *Action in Perception* 서두에서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있는 맹인의 사례를 제시한다. 만약 그 맹인이 백내장 제거 수술을 통해 시력(vision)을 회복한다고 해도, 노에는 그에게 오직 시각적 자극(visual stimulation)만 존재하고 아무런 지각 내용을 갖기 못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노에는 어떠한 감각적 자극이 있더라도 감각운동지식이 있어야만 지각내용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선천적 백내장 환자의 경우 감각운동지식(sensorimotor knowledge) (기술 혹은 노하우)의 활용을 경험하지 못한 일종의 '경험적 맹시(experiential blind)'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내장 제거 수술을 끝낸 맹인에게 처음 펼쳐진 세계는 일종의 두터운 회색 안개로 덮힌 것 같은 간츠펠트(ganzfeld)²⁰⁾, 즉 내용을 갖지 못하는 지각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이다. (Noë, 2006)

다시 IW 사례로 돌아가서, IW는 선천적으로 고유수용성감각이 부재한 사람이 아니며 그는 사고 이전 19년 동안은 그의 신체와 행위에 대한 소유감을 고유수용성감각을 통해 갖고 있었다. 즉 IW는 일종의 경험적 맹인인 선천적 맹시 환자와 달리, 고유수용성감각을 활용해 내적으로 획득한 소유감에 대한 경험이 부재한 사람이 아니다. 현재까지 IW와 달리 선천적으로 고유수용성감각이 완전히 부재했지만, 신체적 행위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뿐만 아니라 고유수용성감각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재하게 된 사례는 IW를 제외하고 드물다. 태생적으로 고유수용성 감각이 손상된 경우는 다음 케이스가 있다.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idrosis' (CIPA)와 'Hereditary Sensory and Autonomic Neuropathy type IV' (HSAN-IV)이 대표적인 신경 장애이다. 이 유전성 질환은 심각하게도, 온도에 반응하지 못하며 통증에 관한 감각을 뇌에 전달하지 못해서 고통을 인지할 수 없다. 하지만 IW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들은 고유수용성 감각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가 아니라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극심한 온도에 통각을 못 느낄지라도 내 사지의 위치나 그 사지가 나의 것이라는 소유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고유수용성 감각의 손상 문제는 정도degree의 문제이기에, 개별자에게 결여된 인지 능력이 다를 것이다. 결국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IW 처럼 고유수용성 감각의 완전한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드물며, 또한 그가 선천적으로 고유수용성 감각이 부재한 채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선천적 부재의 경험적인 보고가 없을 뿐더러, 근육과 힘줄의 내수용기를 가지고 태어나고 발달과정을 겪는 인간을 비롯한 유기체가 선천적으로 고유수용성 감각이 완전히 결여된 채 존재할 수 있는지도 사실상 의문이다. 일종의 사고실험은 가능하겠으나, 실제로 경험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어느날 IW가 19세에 잃었던 고유수용성감각을 회복한다고 가정해본다면, 그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경험맹 환자처럼 간츠펠트(ganzfeld)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감각에 의존하

20) 김슨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두터운 회색 안개가 낀 것처럼 실제로 주어진 외부 세계를 볼 수 없는 상황을 전체야(ganzfeld)라고 한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 존재하지만, 지각이 성립되지 않는 시야이다. (Gibson 1979, 150-151)

지 않는 방식으로, 즉 정상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방식으로 소유감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IW와 달리 선천적으로 고유수용성감각이 부재한 사람의 사례가 경험과학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와 행위에 대한 소유감을 IW처럼 훈련을 통해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맺음말

우리는 눈을 감아도 내 신체 부분이 내 것이라는 것과 나의 행위가 내 것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해서 일인칭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신체와 신체적 행위에 대한 소유감(sense of ownership)을 가질 수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특히나 생리학, 심리학, 신경과학, 의학 분야에서 많이 다뤄져 왔지만, 철학에서도 의미 있는 담론을 구성할 수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 자체는 현대의 경험과학적 발견이나, 이 개념 자체는 사실 데카르트의 심신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흄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는 지각의 역할, 그리고 메틀로-폰티의 지각 현상에 있어 '살아지는 신체(lived body)'의 기여 등 철학적 주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 자체만을 주목해 중심으로 다루는 철학자는 드물지만, 지금 철학계에서 이 감각을 다루는 주된 입장은, 이러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지각, 신체와 행위자성, 자기동일성, 윤리적 의사결정 등 주체의 자기-지칭과 활동에 크게 '기여(contribute)'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슈메이커와 깬러거와 같은 철학자들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통한 주체로서(as subject) 자기-지칭은 오류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 논문 역시 이들과 의견을 함께 한다. 한편 이 논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유수용성 감각은 내 신체와 신체적 행위의 소유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즉 고유수용성 감각이 신체와 행위자성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철학자들의 주된 주장에서 나아가 더 강한 주장을 피력하고자 했다. 이러한 강한 주장이 논증의 부담을 가지는 이유는 논문에서 제시했던 예외적이고 병리적인 사례가 외견적으로는 내 주장에 대한 즉각적인 반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마르셀이 제시한 병리적 사례를 배제하고 일반적 상황만을 고려할 때 고유수용성 감각은 오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 같지만, 일반적 상황에서 인간의 고유수용성감각은 비-관찰적이며 내적인 자기-자각으로 기능하며 오류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직관적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외적 상황에서조차, 우리의 직관이 맞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마르셀이 제시한 병리적 사례들이 철학적 통찰(insight)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본고의 2절에서는 마르셀이 반증사례로 제기한 무정부적 손 현상, 그리고 내가 제시한 더욱 강력한 반증사례인 진동-촉각적 착각 경험이 무효함을 보여줬다. 결국 고유수용성 감각은 내 신

체와 신체적 행위에 관한 한 소유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오류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옹호된다. 3절에서는 마르셀이 반증사례로 제기한 이안 워터맨 사례가 무효함을 보여줌으로써 내 주장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고유수용성 감각은 내 신체와 신체적 행위의 소유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참고문헌

- 권홍우 (2017). 「오인으로 인한 오류 번역성의 교훈」, 철학사상 : 129-156.
- Cassam, Quassim. (1995). Introspection and bodily self-ascription. In J. Bermúdez, A. J. Cole, Jonathan. (1995), *Pride and a daily marathon*. The MIT Press.
- Della Sala, S. (1994), "The anarchic hand: a fronto-mesial sign", in F. Boller and J. Grafam (eds.), *Handbook of Neuropsychology*, ix. Amsterdam: Elsevier, North-Holland.
- Evans, Gareth. 1982. *The Varieties of Reference*, ed. J. McDowe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llagher, Shaun. (2003). Bodily Self-Awareness and Object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Vol. 7.
- Gibson, James. (1986).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Psychology Press, pages. 182-188, 203-208.
- Marcel, Anthony. (2003), *The Sense of Agency*, Oxford University Press.
- McNiell, David. (2009), IW-"the man who lost his body", *Handbook of Phenomenology and Cognitive Sciences*.
- Noë, Alva. (2004), *Action in Perception*. The MIT Press.
- O'Shaughnessy, Brian. (2003). *The Consciousness and th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Chapter IV.
- O'Shaughnessy, Brian. (2003). *The Epistemology of Physical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Peacocke, Christopher. (2003). *Action: Awareness, Ownership, and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 Shoemaker, Sydney. (1968). Self-reference and self-awareness. *Journal of Philosophy*, 65: 555-567.
- Wittgenstein, Ludwig. (1958). *The Blue and Brown Books*, Blackwell Oxford. pages. 66-67.

1차 원고 접수: 2023. 07. 08
1차 심사 완료: 2023. 08. 24
2차 원고 접수: 2023. 09. 02
2차 심사 완료: 2023. 09. 17
최종 게재 확정: 2023. 09. 18

(Abstract)

Proprioception and the Sense of Ownership

Sharon Yoon

Department of Philosophy, Ewha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proprioception provides a sense of ownership over one's body and physical actions. Proprioception is a sense that relies on somatic interoceptors rather than exteroceptors that receive external stimuli and has epistemic importance of knowing the presence, location, and movement of bodily parts. In this paper, I will argue that Shoemaker's principle, "Immunity to Error through Misidentification (IEM)" can be applied to proprioception by focusing on one of the intrinsic features of proprioception: First-Person Perspective. I will advocate the following two arguments by defeating each of Marcel's pathological counter-examples in turn. Proprioception is infallible in that it provides a sense of ownership over one's body and physical actions. Second, proprioception is indispensable for the sense of ownership of one's body and physical actions.

Key words : Philosophy of Perception, Philosophy of Mind, Proprioception, Immunity to Error, Sense of Ownership